

NEWS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위니아에 시간을... 광주시, 기업회생 탄원서 제출

봄무·봄배추·봄양배추

농가 재배 의향면적 조사

전남도는 가을배추, 겨울배추 등 월동 작물 수확 후 본격 영농철을 맞아 봄무, 봄배추, 봄양배추 등 정식기에 맞춰 3월 말까지 농가의 재배·의향 면적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봄무, 봄배추, 봄양배추 재배 면적은 생육 기간 재배 기술지도를 통한 생육관리와 농작물의 생산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 공급량 조성, 수확기 다음 작기 품목과 종자 구입 및 육묘량 결정 등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행정조사는 시군에서 읍면 마을단위로 조사를 하고, 마을 지리정보와 재배 실정에 능통한 이장을 통한 1차 재배면적 조사와, 종자 구입, 육묘 면적 등을 통한 의향 면적 2차 조사로 이뤄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3월호)에 따르면 봄무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11.5% 증가, 봄배추는 6.5% 증가, 봄양배추는 5.6% 증가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한 총리 탄핵'서 계속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탄핵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법리적 판단 전에 사실 인정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현재가 비상계엄 적법성이나 내란 행위에 대해 아직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관측과 함께, 윤 대통령 사건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최종 결정문 작성 단계에서 빠진 것 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에 실제적·절차적 하자 국회 침탈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나 자료 유무가 탄핵 심판 선고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각하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만 지적했다.

현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이르면 27~28일 선고 전망이 나오지만 다음 달로 밀릴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사실상 이 대표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의 정치적 선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에 안정적 회생계획 마련 추가시간 필요

채권자·투자자 폭넓은 협상...가전산업·경제위기 극복

광주시는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지역 가전산업 앵커기업인 위니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마무리를 위한 추가시간을 부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지역민의 소중한 일터이자,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장 인근 상권 종사자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위니아

가 기업회생을 통해 가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았다.

광주시는 탄원서에서 "위니아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김치냉장고 브랜드 파워 25년 연속 1위 '탑체 신화'를 일컫는 광주지역 대표적 가전기업"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광주 가전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전산업은 광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2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2%가 위니아를 비롯한 4개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가 담당해 대우위니아 부도 사태는 지역 산업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위니아의 위기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

당 기업 종사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인근 상권, 중소기업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접했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가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어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가시간이 허락된다면 채권자, 투자자 사이의 폭넓은 협상을 통해 안정적

인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위니아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편성했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광주 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50억원 등 자금 지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정부·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의를 구성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지원하고 있다.

위니아는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오는 4월 23일까지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시의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도시철도 2호선 총연장 37km 공사 구간을 한바퀴 돌며 공정률과 안전조치 등을 점검한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시의회,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직접 살핀다

예결위원회, 총연장 37km 구간 도보로 이동

진행 상황 점검...주민 불편 등 목소리 청취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 총연장 37km 공사 구간을 직접 걸으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도시철도 2호선 순환구간을 한바퀴 돌며 공정률과 안전조치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도로 포장 상태와 보도의 안전성, 자전거 이용 편의성 등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운행 실태 등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 지향하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이라는 '대·자·보 정책'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 연계성 등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기열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시철도 2호선 전체 구간을 직접 걸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철도 2호선 한바퀴' 점검 일정은 첫째 날 광주시영역을 출발해 상무~백운광장~남광주를 거쳐 북구청까지 약 17km를 이동한다.

둘째 날은 북구청~일곡동~양산동~첨단지구를 지나 수안지구까지 약 16km를 이동하며,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수안지구에서광산대교~유덕동(차량기지)을 거쳐 시청역까지 약 7km를 이동하며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주요 문제점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일일 1~2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봄철 대형산불' 예방 총력

긴급 대책회의...소방서·자치구 등 협력체계 점검

광주시는 2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대비 관계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로 경북·울산·경남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르고, 광주지역도 지난 22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황 발령됨에 따라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5개 자치구, 소방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협력체계를 점검, 강화했다.

강기정 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영농준비 시기와도 맞물려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24일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해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신문·방송·대중교통·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벌이고 있다.

양민동 기자 yang00@gwangnam.co.kr

영암 한우농장서 구제역 1건 추가 발생

영암 13건·무안 1건 총 14건

전남도는 지난 23일 영암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1건이 추가 발생해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발생농장은 1차 발생농장으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우 3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양성축 1마리와 임상검사 결과 증상이 발견되는 소는 신속히 살처분

처리할 계획이며 해당 농장 출입자 통제와 소독을 강화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22일까지 모든 시·군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충분한 면역력 형성 시까지는 최소 7일 가량 소요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축사 내외부를 2회 이상 소독하고 출입자 통제와 의심축 즉시 신고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4일 기준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총 14건이다. 박정렬 기자 hobul@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였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ENERGY SENSE CAMPAIGN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일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앞자리에 한국전력